



報 會 窓 同 總 士 空

發行人：朴 雄 鎮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孫 榮 壽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朴 鎔 泰 會 長(空士 5期)
· 前 空士 校 長(豫 少 將)

國防部는 軍의 全面的인 改革 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國防 5個年 改革 推進 委員會”를 構成했다고 한다. 國防消息 4月號에 의하면 國防部長官 直屬으로 編成된 同 委員會는 委員長 傘下에 <軍 構造改編>, <防衛力 改善>, <人事 制度 改革>, <國防管理 改善> 등 4개 分科 委員會를 두고 本格的인 研究 活動을 始作했다고 한다. 우리 軍의 構造를 統合軍(한 사람의 統合軍 司令官이 陸·海·空軍의 軍政權과 軍令權을 行使토록 하는 制度)으로 改編하는 問題를 軍 構造改編 分科 委員會에서 本格的으로 다루겠다는 意圖가 아닌가 念慮된다.

우리 軍은 1948年 創軍以來 3軍 並立制(軍의 軍政權과 軍令權을 統轄하고 있는 國防部 長官 傘下에 陸·海·空 3軍 參謀總長을 두어 各軍의 軍政과 軍令 事項을 委任 遂行토록 하고 合參議長은 國防部 長官에 대한 軍事 諮問 役割만 遂行케 하는 制度)를 維持해 왔었다. 그 後 1966年 6月 이스라엘과 아랍 聯盟間에 勃發했던 “6日 戰爭”에서 이스라엘이 10배가 넘는 周旋 아랍 聯合軍을 단 6日만에 制壓함으로써 全世界를 놀라게 했었다. 이때 國防部 軍 特命 檢閱團에서 이스라엘의 戰爭 勝利 原因을 分析하고 韓國 軍 發展에 關한 參考資料를 蒐集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調査團을

왜 統合軍으로 軍 構造改編을 反對해야 하는가?

派遣한바 있었다. 當時 陸軍이 主軸을 이룬 調査團은 이스라엘의 戰爭 勝利 原因이 軍 構造가 統合軍으로 編成되어 있어 圓滑한 作戰 指揮統制 體制에 起因했다고 보고 韓國軍의 組織을 統合軍으로 改編을 勸誘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戰爭 勝利 主原因은 統合軍 組織 때문이 아니라 精銳화된 陸·海·空軍 兵士들의 戰鬪 能力이 卓越했기 때문이며, 精兵 強軍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統合軍이 오히려 逆效果일 수도 있다는 反對 論理에 부닥쳐 統合軍의 꿈이 無産된바 있었다.

그 後 全斗煥 前大統領의 5共和 國이 誕生되자, 統合軍으로의 軍 構造改編을 陸軍이 主軸을 이루고 있는 國防部에서 다시 推進하려 했으나 海·空軍의 反撥과 社會輿論의 反對에 부닥쳐 統合軍 推進計劃은 水面 밑으로 潛伏했었다.

1988年 盧泰愚 前大統領의 6共和 國 出帆으로 統合軍으로의 軍 構造改編 問題는 다시 水面 위로 浮上되었고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818 研究 委員會”가 構成되어 本格的인 軍 構造改編 作業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海·空軍의 強한 反撥과 當時 野蠻 및 言論界와 學界의 거센 反對로 統合軍 推進은 挫折되고 現在와 같은 合同軍 體制(合參議長이 各軍의 作戰部隊를 直接 指揮하여 作戰을 遂行하는 用兵에 대한 權限을 行使하고, 各軍 參謀總長은 軍事力을 建設하고 維持하는 養兵에 대한 權限을 갖는 軍令權과 軍政權이 二元화된 制度)로 改編되었다.

그 後, 1996年 9月 東海岸에 北 聯 潛水艦 浸透 事件이 發生했을 때 初期 對應作戰 및 鎮壓作戰 遂行 過程에서 軍의 作戰 指揮統制에 問題點이 있었다는 理由를 들어, 二元화된 軍政權과 軍令權을 統合一元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다시 擡頭되었다. 그리고 지난 해 年末 金大中 大統領의 새 政府 出帆을 앞두고 國防部와 合參本部에서 軍 構造를 軍政權과 軍令權을 一元화한 統合軍 體制로 改編해야 한다는 建議을 “政權 引受 委員會”에 내놓아 國家 安保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多數의 國民들에게 不安을 안겨 주었다. “國民의 政府”가 正式으로 出帆한 요즈음에는 統合軍 體制가 IMF時代의 어려운 經濟 條件下에서 經濟의이고 效率의인 軍 運營에 適合하다는 名分을 내세워 軍 構造改編에 積極性을 띠고 있다.

그 동안 統合軍 體制는 各界 各層에서 우리 安保 實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自由 民主主義 憲政體制에 正面으로 違背된다는 違法性과 不當性을 屢次 指摘하고 이를 極力 反對하는 輿論이 沸騰했음에도 不拘하고 執拗하게 이를 實現시키고자 하는 그 끈기에 驚歎을 禁치 못하면서, 此際에 統合軍 體制는 우리의 安保現實과 世界的인 軍 構造 發展 趨勢를 勘察할 때 우리 實情에 適合치 않다는 點을 다시 한번 指摘해 두고자 한다.

첫째, 統合軍 體制는 自由 民主主義 國家의 軍事 制度로 不適合하다는 것이다. 自由 民主主義 基

本 哲學은 多樣한 價值的 的 共存과 權力의 分散에 있다. 國家權力이 어느 한곳으로 集中되는 것을 防止하고 適切히 分散되어 相互 牽制와 均衡을 維持하면서 國家 發展을 圖謀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軍 統帥權도 결코 例外일 수는 없다. 그러나 統合軍은 이와 反對로 統合軍 司令官에게 軍令權과 軍政權이 集中되어 自由 民主主義 體制의 權力 分散 原則에 違背된다. 美國, 日本, 英國, 獨逸, 프랑스 등 大部分의 自由 民主主義 先進 友邦國들은 3軍 並立制를 根幹으로 合同軍制를 加味한 軍 構造를 維持하고 있으며, 國家 安保 問題가 별로 深刻하지 않거나 軍事力 規模가 小規模인 캐나다, 스웨덴, 臺灣, 이스라엘 등의 一部 國家와 北聯과 같이 共產主義 一黨獨裁 體制 國家에서만 統合軍制를 採擇하고 있다.

過去 日本과 獨逸이 統合軍制를 維持했다가 肥大해진 軍部의 壓力으로 國家政策 方向을 잘못 選擇하여 世界 2次 大戰을 誘發시켰다가 敗亡한 歷史의 敎訓을 잊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 國家의 莫論한 暴力行使 手段을 한 사람이 獨占함으로써 國基를 危殆롭게 하는 事態가 招來될 수 있다는 점도 看過해서는 안될 重大한 問題點이다.

둘째, 軍의 文民統治를 根本으로 하고 있는 우리 憲法精神에 違背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憲法은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2面에 계속)



아직도 六月인가

— 현종일 43주년에 부쳐 —

역사의 강물은
에나 지금이나 흐르고 있건만
해마다 영웅을 녹이는
따스한 남풍도 불고 있건만
상흔의 155만인
인간강 강변에 머무는 세월은
아직도 원혼들의 잔해로 남아야 하는가
가슴속에 웅크리던 六月이여
윤비성을 맨도는
진혼의 나팔소리 지금 듣고 계십니까
허허롭게 퍼도는 구름이여
이제는 단비 한줄금 뿌리시구려
머지않아 온대던 통일의 숙원
남라 부이 영싸안고 통곡하는
그날의 함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六月의 꽃비 한번 내리시구려
포성의 곡자구니후
헤매고 계실 영령들이시여
장려하게 피었던 붉은 꽃자리마다
민족의 뿌리깊은 생으로 솟아. 하여
한겨레의 찬연한 역사 이룩하소서
그리고 편안히 영면하소서

朴 雄 鎮(空士 4期)
詩人·文學評論家

(1면에서 이음)

아니면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고 明示하고 있으며, 現役 軍人이 排除된 國務會議에서 主要 軍事政策 事項을 審議 決定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現役 軍人이 아닌 大統領이 國軍 統帥 權을 行使하고 國防部 長官만이 軍政權과 軍令權을 統轄하도록 하는 文民統治를 基本 原理로 삼고 있다. 그러나 統合軍 體制하에서는 現役 軍人인 統合軍 司令官이 陸·海·空 3軍에 대한 軍令權과 軍政權을 行使하게 되어 文民統治의 憲法 精神에 根本적으로 違背된다. 그 뿐만 아니라 國防部 長官과 統合軍 司令官間에 權限과 責任 限界가 模糊하여 軍運營에 混雜과 摩擦을 惹起시킬 憂慮가 매우 크며, 向後 純粹 民間人 出身이 國防部 長官職을 맡았을 때 이와 같은 憂慮는 더욱 深刻해질 것임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셋째, 有事時 戰力 發揮을 極大化할 수 있는 精兵 強軍 育成에 不適하다는 것이다. 軍事組織의 根本目標은 有事時 全力 發揮을 極大化하여 戰爭에서 勝利하는데 있다. 戰爭에서 勝利하려면 統合軍 體制로 軍 構造를 改竊해서 一絲不亂한 作戰 指揮統制 體제를 構築해야 한다는 一部 主張도 있으나 有事時 全力 發揮의 極大化를 기하려면 一絲不亂한 作戰 統制體制 構築 以前에 各 戰力 構成要素(地·海·空)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精兵으로 育成되어야 하며, 精兵 育成은 各軍의 特性을 잘 알고 專門性을 갖춘 各軍의 專門家에 의해서만 可能하다는 점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軍事力은 날로 武器 體系가 複雜多樣化되고 尖端 科學化되고 있어 그 分野의 專門家가 아니고서는 그 特性을 理解할 수도 없고 이를 建設 育成할 수도 없다. 제 아무리 有能한 地上軍 指揮官이라 할지라도 海·空軍 戰力의 特性에 대한 理解가 不足하고 專門知識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海·空軍力을 效果的으로 建設 育成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獅子가 地上에서는 百獸의 王이라고 하나 바다의 善어 새끼나 空中을 나는 독수리 새끼를 기를 수 없는 것과 같이 海軍力은 海軍 專門家에 의해, 그리고 空軍力은 空軍 專門家에 의해서만 精兵으로 訓練되고 強軍으로 育成될 수 있음은 自明한 理致다. 有事時 戰爭에서 勝利하려면 平時 各軍의 戰力이 自軍의 專門

에 의해 精兵 強軍으로 訓練, 育成되고 나서, 一旦 有事時 各軍의 精銳化된 戰力은 '努力의 統合'을 통한 共助를 이루어 英強한 統合戰力 發揮가 可能토록 軍 構造를 編成하는 것이 오늘날 軍 戰力 建設과 運營의 標本이다.

넷째, 統合軍이 經濟的 軍 運營의 代案이 될 수 없으며, 設使 代案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軍 戰力을 經濟的인 側面만을 考慮하여 建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은 IMF時대를 맞이하여 國家 經濟의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한 對策의 一環으로 統合軍을 推進해야 한다는 一部 主張이 있으나 統合軍 體制로 轉換한다고 해서 經濟的 軍 運營이 實現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現在 우리 軍의 經濟 運營을 改善하는 要因은 國防 意思決定 機構가 大部分 陸軍 一邊倒로 構成되어 構造的으로 矛盾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國防部 및 參謀의 主要 核心 補職은 大部分 陸軍으로 補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主要 國防政策 審議 機構의 人的 構成을 보면 陸軍이 51%, 海軍이 7%, 空軍이 12%, 一般職이 30%로 되어 있어 海·空軍 發展을 위한 合理的인 意思 決定을 期待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國防豫算의 效率의 인 配分과 國防資源의 浪費 防止를 實現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그리고 軍의 作戰 指揮系統이 複雜 多端하다는 점도 軍의 經濟的 運營을 改善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陸軍의 境遇 指揮系統이 韓·美 聯合司令部-地上軍 構成軍司令部-野戰軍司令部-軍團-師團-聯隊-大隊 등 複雜한 構造로 編成되어 있어 有事時 作戰遂行 過程에서 指揮 統制上에 많은 問題點을 露出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莫大한 國防 資源의 浪費를 招來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眞情으로 經濟的인 軍 運營을 기하려면 이 問題부터 먼저 改善하는 努力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設令 統合軍이 經濟的 軍 運營에 寄與한다 할지라도 經濟的 側面만을 考慮하여 軍組織을 改竊 調整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軍事組織의 根本 目標은 戰爭에서 勝利하는데 있으며, 제 아무리 經濟的 效率이 높은 軍 組織이라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組織은 결코 考慮對象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統合軍 體制는 韓·美 聯合 作戰遂行에 不適合하다는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는 安保의 根幹을 韓·美 聯合 防衛에 두고 있다. 아직도 常存하는 北側의 戰

爭挑發 企圖를 效果的으로 抑制 策하고, 또 平和統一의 國家 基本 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韓·美 聯合 防衛體制的 鞏固化가 무엇보다도 重要한 當面 安保課題이다. 나아가 統一 以後에도 東北亞의 勢力 均衡을 이루고 이 地域에 恒久的인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韓·美 安保 共助體制가 持續的으로 維持 強化되어야 함은 再論할 必要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軍의 構造는 當然히 韓·美 聯合 作戰에 適合토록 可及的 美軍과 類似하게 編成하는 것이 妥當하다.

그리고 現在 우리 軍의 戰時 作戰 統制權은 韓·美 聯合司令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現 狀況에서 各 參本部의 作戰 統制 機能과 權限을 強化하는 것은 有事時에 韓·美 聯合司令部와 作戰 統制上에 摩擦을 惹起시킬 憂慮만 增大시킬 뿐 無意味한 處事라고 본다. 合參의 技能은 國防部 長官에 대한 軍事 踏問役과 戰爭研究, 戰略 指針 下達, 戰力增強 計劃 主管 등 的 制限된 技能만을 遂行하도록 그 規模를 縮小調整할 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統合軍은 未來戰에 對 備하는 軍 構造 發展趨勢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過去 2次 世界大戰 以前에는 敵의 領土를 占領하는 것을 戰爭의 至上 目標로 삼았기 때문에 戰場의 主役은 當然히 地上軍이 되고 餘地 戰力은 補助 役割을 遂行하는 要素로 認識되어 있었다. 그러나 現代戰에서는 敵의 領土를 占領하지 않고도 敵의 戰力 企圖와 意志를 抹殺시켜서 我側의 要求에 屈服케 하는데 戰爭目標을 두고 있다.

그리고 科學技術의 發達로 戰爭 樣相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未來 戰爭의 特徵은 이미 情報戰에서 그 樣相이 紹介된 바와 같이 航空宇宙戰(Aerospace Warfare), 精密 攻擊戰(Precision Attack Warfare), 情報戰(Information Warfare) 등으로 特徵지어 수 있다. 즉, 過去의 戰爭과 같이 地上軍이 敵의 領土를 侵攻하여 占領하는 戰爭 樣相이 아니라 航空宇宙 武器體系에 의해 敵情에 관한 諸般 情報가 蒐集되고, 選定된 攻擊目標(敵의 心臟部)는 精密 誘導 武器를 搭載한 航空戰力으로 正確히 強打 破壞함으로써 敵의 戰爭 意志를 抹殺시켜 降伏케 하는 樣相으로 變化되었다. 이와 같이 戰爭 樣相이 變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戰場에서 地上軍이 主役임으로 모든 軍 組織을 地上軍 爲主로 編成하고 地上軍 司令官이 陸·海·空 3軍을 統轄하는

統合軍 體制로 轉換해야 한다는 主張은 時代 錯誤의인 發想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곱째, 經濟的인 軍 運營을 理由로 3軍의 類似機能 部隊를 統·廢合하는 것은 海·空軍의 戰力 弱화를 招來하므로 再考慮되어야 한다. 1971年 以後 經濟的이고 效率的인 軍 運營을 理由로 3軍의 警務, 通信, 保安, 情報 報 運 및 一部 軍 需 分野가 統合編成 運營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運營 結果는 원래의 越위와는 다르게 否定的인 側面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推進되어 왔던 3軍의 類似 部隊 統合은 嚴密한 意味에서 陸軍이 아니라 海·空軍 部隊로 統·廢合되어 흡수된 單一軍 體制로의 改編이었다. 統合된 部隊 司令官의 人的 構成은 3軍을 效果的으로 支援하기 위해 3軍 要員이 適切히 按配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陸軍 爲主로 補任되어 있어 海·空軍에 대한 圓滑한 作戰 支援를 期待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海·空軍을 萎縮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그리고 業務處理 系統이 複雜해지고 業務處理에 長時間이 所要되어 원래 越위와는 달리 運營의 效率性과 經濟性이 逆으로 低下되고 있는 實情이다.

戰勝의 絕對的 要件인 各 構成 軍의 精銳化를 위해서는 各軍의 獨立性이 保障되어야 하며 諸般 作戰 支援面에서 自足性을 갖도록 組織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陸軍은 지나치게 肥大해지고 海·空軍은 相對的으로 萎縮되는 類似機能 部隊의 統·廢合은 海·空軍의 自律性과 專門性을 喪失케 하여 海·空軍의 戰力을 弱화시키고, 軍間に 敵對感을 造成하며, 海·空軍 將士들의 士氣를 低下시켜 結果적으로 統合 戰力 發揮에 逆機能을 招來한다는 점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 우리 군이 推進해야 할 軍 構造 調整의 當面 課題는 統合軍으로 改竊하는 問題가 아니라, 陸·海·空軍의 戰力 不均衡을 解消하는 問題라는 점을 強調하는 바이다. 兵力 數에서 世界 第6位의 大軍을 維持하고 있으면서 地上軍이 82%를 占하고 있는 勞動集約形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우리 軍 構造를 兵力 中心으로 武器體系 中心으로 轉換하여 3軍이 均衡을 維持하도록 發展시켜야 한다. 未來戰에 對 備하여 海·空軍을 擴大 增補해야 할 마당에 陸軍 中心의 單一軍 體制의 統合軍으로 軍 構造를 改竊한다는 것은 合理性도, 妥當性도, 說得力도 尙然하다는 점을 指摘해 두고자 한다.

부모를 위한 자녀의 심계명

- 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위한 자녀의 최대의 효도는 복음을 전해 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구원 받지 못하면 자녀의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 안에서 공경하라.
- ② 부모님 편에서 생각하라. 산전수전 다 겪고 경험이 풍부한 부모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열매인 자신을 알고 올바른 교훈을 달게 받으라.
- ③ 존대말을 사용하라. 말은 씨가 된다. 부모를 향하여 낮춤말을 하면 부모가 낮아진다.

- ④ 부모의 생신을 기억하라. 젊은 시절 부모를 부시하면 그 보람이 자녀에게 임하기 마련이다.
- ⑤ 이유없는 반항을 삼가라. 젊은 시절 무조건 부모에게 대들고 따지고 부모를 봉건적으로 물아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유가 있더라도 기본

- 이 좋으실 때 말씀드려라.
- ⑥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낡은 자식끼리 싸우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화목할 때가 곧 효도임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 ⑦ 가정예배에 참석하여 부모의 교훈을 받으라. 동생들을 모시고 예배준비를 하며 부모님의 유일하신 말씀과 교훈의 감소를 이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귀울이라.

- ⑧ 부모의 은혜에 항상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라.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낚시며 기르신 부모님의 하늘같은 은공을 마음깊이 간직하고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답해야 한다.
- ⑨ 부모와 비밀 없이 의논하라. 문제 발생은 숨기고 감추는데 있다. 부모에게 감추지 말고 털어놓고 이야기하라. 부모의 경험으로 현명하게 문제가 풀릴 것이다.
- ⑩ 진학과 진로 문제를 비롯하여 결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부모와 이야기 나눔으로 결코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하므로 조물주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를 행복하게 한다.

(編輯室)



田永勳 博士 (空士 18期)

전영훈 박사는 1947년 5월 8일(음)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다.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종사가 되겠다고 공군사관학교 제18기에 입교하였으며 졸업 후 전투 조종사가 되었다. 비행 생활을 하던 중 한 정비사로부터 비행기 부품을 교체하면서 서얼마 안 되어 보이는 부품을 엄청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것과 그것이 없이는 비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 늘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손으로 항공기를 만들며 우리 영공을 지킬 때 진정한 자주국방이 실현된다고 생각되어 항공기 개발에 직접 뛰어들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팬텀기를 조종할 때 팬텀기의 무장체계가 복잡한 것에 대해 개조방안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비행단장님이 이를 기록하게 하여 미국으로 유학하게 데 적국적인 추천으로 미국의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항공공학 박사과정 유학을 가게 되었다.

책을 대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유학을 간 전 박사는 생도시절에 배우지 않았던 컴퓨터가 보편화되었고 모든 것을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이 학교 항공공학과는 실기를 위주로 하는 학교로 항공과 내에 비행장과 활주로, 격납고, 제작공장 등이 있어 항공기 개발 및 제작을 직접 실습할 수가 있으며 고정의, 헬기 및 글라이더 등 1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 논문을 쓸 때 비행을 직접하면서 비교 simulation을 할 수가 있었다. 또 학과시간에 항공기 성능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는 이미 비행기 조종경험이 있어 대략적인 답을 알고 있는지라 교수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박사과정이 끝난 후 논문이 미 국방성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노를담 대학에서 장학금과 함께 POST DOC 제안을 받아 본국의 상사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2년간 POST DOC을 수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85년도에 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POST DOC을 위한 한국의 국방부 심사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였을 때 한국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조종사로서 항공공학 박사가 처음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이었다.

2년간의 POST DOC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여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항공기 개발부에 부임이 되어 그렇게도 원했던 항공기 개발(KTX-1 기본 훈련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국과연은 항공기 개발에 경험이 미흡하였는데 KTX-1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사업은 당시 두 번이나 취소가 되었던 것을 그때마다 본부장과 함께 공군 총장님에게 직접 보고와 설명을 드려 다시 살리곤 하였다. 1989년 국과연의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그는 고정익 체제실을 맡게 되었으며, 여기서 고등 훈련기(KTX-2)를 사업화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업은 그가 여지껏 소망해왔던 사업이었다.

전 박사가 그토록 항공기를 국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외국에 칠락만 받고 살아온 치욕의 역사였다.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외침을 당하고 또 나아지려면 또 당하여 지금까지 당한 것이 역사가들은 932회의 외침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주변국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자력으로 버티다 쓰러졌다. 주변국에 요청시는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그것을 빌미로 엄청난 희생을 지워야 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햇빛 한 번 날아 없었다. 그러나 금세기 후반에 우리의 경제력이나 국력이 신장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기르기에 좋은 기회다. 그런데 현대 및 미래전의 양상은 항공무기 체계가 전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동전이나 포클랜드전, 걸프전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항공무기 체계는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판매국이 후속 군수지원을 중단하는 항공기는 아무 쓸모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란과 이라크전에서 잘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의 항공무기 체계는 우리의 지력에 따른 전력이지 아니라 판매국의지에 따른 전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상황을 벗

어나야 진정한 자주국방 능력을 보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 개발을 시작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KTX-1(기본 훈련기)이요 KTX-2(고등 훈련 및 경 전투기)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머지않아 우리도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자주적 국방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KTX-2 개발은 우리 미래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KTX-2는 하루 속히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 이 일에 직접 발벗고 나서게 되었다.

'92년부터는 탐색개발이 시작되어 그는 고등 훈련기 설계팀을 이끌고 미국 록히드 항공사에 갔다. 탐색개발사업은 가게 되었지만 그는 걱정이 없었다. 과연 록히드 항공사가 기술을 얼마만큼이나 이전해줄까? 우리가 탐색개발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래서 그는 록히드 항공사와 탐색개발을 하는 기술전수에 몰두했다. 그런 결과로 록히드가 3년간 있는 동안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었고 체계개발에 자신감을 갖고 돌아왔다. 한편 그는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뚜렷한 방법을 배워온 것이다. 그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4년간의 탐색개발을 주어진 비용을 절약하여 20억원을 반납하면서 완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체계개발 형태(국가주도, 업체주도)에 대하여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항공산업은 국내수요로는 경제성이 미흡하므로, 국제무대에 뛰어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선진 항공사로부터 정성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야 단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제도, 절차, 개발방법, 문제 해결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하고 배웠다. 그가 선진 항공사로부터 배우

고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국제경쟁력을 갖고 Business를 하려면 업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지 않으면 항공산업은 육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동개발사인 미국 록히드 항공사는 파트너가 Business 집단이 아니면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그렇듯이 록히드사가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 국제무대에 Business하여 이익을 공동으로 갖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Business 집단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을 추진하는데 지면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 국방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한 후 업체주도보다는 국가주도를 선호하고 계획서를 국가주도로 제출했다. 앞으로의 국제 추세에 맞추어 업체주도가 옳다고 생각하여 그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연구 개발사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되어 실무자선출 때나 참관관 이상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와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발표 기술 3월호에 다시 "한국 항공산업과 고

등 훈련기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여 이것을 관련자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모두 보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에 중요한 분들이 모두 바뀌어서 고등 훈련기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97년 7월 3일 총리주제하에 개최된 항공산업 육성위원회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을 금년부터 착수토록 결정을 하였다. 그는 이 결정의 소식을 듣고 두뺨에 눈물이 흘렀다. 이로써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사업이, 아니 규모보다 더 중요한 현대전에 전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항공무기체계 자주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사업으로 역사적인 일이라 하였다. 그는 그동안 KTX-2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 준 많은 관계관과 중요한 가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해 준 뜻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자주국방의 실현과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항공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記 姜容求 6期)

약 력

- 1966~1970 공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
- 1979~1981 (미)미시시피 주립대학 항공공학(석사)
- 1982~1985 (미)미시시피 주립대학 항공공학(박사)
- 1984~1985 (미)미시시피 주립대학 정치학(석사)
- 1985~1987 (미)노를담 대학 POST-DOC 과정 졸업
- 1981~1982 공군 연구분석실 무기체계 연구
- 1987~현재 국방과학연구소
- 1987~1989 KTX-1 연구개발 참여
- 1989~1996 KTX-2 개발사업 책임자
- 1991~1992 영국 BAE 항공사 설계기술전수
- 1992~1995 KTX-2 설계 기술전수 책임자
- 1998~현재 삼성항공회사

논문 : 무인항공기 CABLE 이용한 캡슐회수에 대한 유도조종 MODEL 연구의 11개

대한 유도조종 MODEL 연구의 11개

同窓會에 關한 消息

第5次年度 業務 回誌(要約)

第5次年度 任員 會費 現況

1997년도

- 7. 1. • 업무인수
- 회비총액 : 57,307,926원 → 1년적금(조흥은행 신길지점)
- 7. 2. • 空軍參謀總長 李光學 大將 祝賀화분 접수
- 7. 3. • 本會 沿革 作成
- 7. 4. • 本會 會長團 就任人事次 空軍參謀總長 禮訪
- 7. 15. • '97年度 理事會 開催
- 7. 21. • '97年度 理事會 會議錄 發送(全任員 103名)
- 任員會費 納付 公文 發送(期生會長 19名)
- 7. 24. • 총동창회 봉투 大 10 BOX, 소형봉투 5 BOX 製作
- 7. 29. • 本會 旗, 弔旗, 看板 製作
- 7. 31. • 會長就任 人事狀 全會員 1,600名에게 發送
- 23期 任員名單 接受
- 副會長 鄭敬模
- 理 事 姜熙昌, 崔猷弘, 金炳昌, 金永根
- 8. 4. • 11期 任員名單 接受
- 副會長 許次冰
- 理 事 明英男, 洪仁基, 韓萬成, 閔泳一
- 8. 12. • 24期 任員名單 接受
- 副會長 金益慶
- 理 事 金明翼, 羅才男, 鄭南珠, 李雄相
- 8. 19. • 運營贊助者 人事便紙 發送
- 8. 26. • 브라매會長, 事務總長 接待
- 9. 2. • 福祉團 指揮官, 參謀 親交時間 가짐
- 9. 18. • 本會 定款 200部 製作
- 9. 23. • 第4次年度 任員會費 未納者 독촉公文 發送
- 9. 24. • 本會 會報(第7號) 2,300部 發刊 配布
- 9. 27. • 空士生徒 4名 訪問(本會 活動事項 取材次)
- 10. 2. • 한국하우본 廣告料 1백만원 受領
- 10. 6. • 韓英奎(4기) 會員 死亡(삼성의료원 5일장)
- 10. 15. • 錦湖타이어 廣告料 1백만원 受領
- 10. 18. • 韓周爽(前 空軍參謀總長) 同門 來訪
- 10. 20. • 空軍參謀總長 李光學 大將 2백만원 贊助
- 10. 30. • 朴雄鎮 顧問 詩碑除幕式(브라매공원)
- 11. 11. • G.E 권선타트 廣告代金 貳百萬원 受領
- 11. 12. • 本會 배지(小型) 400개 製作
- 鄭求雄 同門(2期) 宿患으로 別世
- 福祉團長 전영배 장군 訪問
- 11. 20. • 空士同門會員 名簿 1,034部 受領 配布
- 12. 14. • 本會 會報(第8號) 2,300部 發刊 配布

('98. 5. 30. 現在)

單位 : 만원

期生會	副會長	理 事				
1期生		金舜經 10	金正麟	趙長成	崔奎淳	10
2期生		金鎮山 10	邊善基 10	成昌銘 10	李榮燾	10
3期生		孔思彥	蘇明沃	宋明憲	崔玄圭	
4期生		金在玟 10	申東滿 10	李相俊 10	鄭樂永	10
5期生	朴容穆 20	成甫慶 10	李源範 10	崔泓善 10	韓弼淳	
6期生	全春雨 20	朴根泰 10	李秀烈 10	李潤雨 10	許恒茂	10
7期生	金俊洙 20	姜榮植	朴泰煥 10	吳世昌 10	崔盛大	10
8期生	趙顯孝 20	金應泳 10	金道植 10	任炯栢 10	張正孝	10
9期生	朴鍾權 20	樞赫遠 10	金明珠 10	愼都範 10	崔一永	10
10期生	李秀吉 20	金萬圭 10	金祥海 10	金在遠 10	金漢龍	10
11期生	許次冰 20	明英男 10	閔泳一 10	韓萬成 10	洪仁基	10
12期生	裴基俊 20	金英雄 10	李富府 10	全大禹 10	鄭敏男	10
13期生	文基喆 20	金洋秀 10	柳根宇 10	李起炫 10	趙健煥	10
14期生	朴鍾詵 20	金世榮 10	閔信雄 10	韓龍吉 10	韓正九	10
15期生	朴邦弘	樞基東	金聖德 10	嚴翼俊	柳成奉	
16期生	朱昌成	姜哲洙	金信興	李相烈	李殷陽	
17期生	宋大晟 20	魚秀淵 10	向賢俊 10	張基善 10	鄭求鎬	10
18期生	鄭源泰	高正勳	金賢圭	尹在勳	趙南洪	
19期生	片世榮 20	金複萬 10	庚炳權 10	丁成鎮 10	전재구	10
20期生	金永柱	李四龍	崔秀信	韓俊洙	김호동	10
21期生	朴京石 20	金泰煜 10	鄭東熙 10	黃思洪 10	정영운	10
22期生	崔武烈	孫重烈	宋錫鳳	강수준		
23期生	鄭敬模	姜熙昌	金炳昌	金永根	崔猷弘	
24期生	金益慶	金明翼	羅才男	李雄相	鄭南珠	

1998년도

- 1. 13. • 孫周鎰(1기), 朴載誠(2기), 崔恒基(3기), 朴雄鎮(4기), 顧問들 招請 晚餐會 開催(空軍會館)
- 2. 3. • 統合軍推進反對 모임을 공군회관에서 가짐, 參席者 朴鎔泰, 全春雨, 崔泓善, 徐鎮泰, 姜容求
- 2. 6. • 臨時 理事會 開催
- 統合軍推進反對 推進委員 選拔
- 孫周鎰, 崔東略, 崔恒基, 朴鎔泰, 全春雨, 徐鎮泰, 宋大晟
- 2. 8. • 아시아나航空 廣告料 貳百萬원 受領
- 2. 12. • 模範 遺子女 獎學生 推薦 公文 發送
- 2. 19. • LG 精密 廣告料 壹百萬원 受領
- 2. 26. • 徐鎮泰 將軍 清州西原大學 總長 就任
- 3. 4. • 李光學 參謀總長 離任 人事次 訪問
- 1期生 主催 各期生會長(1~20기) 親睦 招請 行事 舉行
- 3. 6. • 空軍參謀總長 離就任式 參席
- 3. 10. • 本會 會報(第9號) 2천부 發刊 配布
- 3. 19. • 朴春澤 參謀總長 就任 人事次 訪問
- 3. 20. • 韓國航空振興協會 廣告料 50萬원 受領
- 3. 24. • 空士 6期 次期會長 選出 臨時總會 開催
- 會 長 : 全春雨
- 副 會 長 : 孫振鎬
- 理 事 : 尹玟淳, 李芳澤, 李載奎, 卞永喆
- 監 事 : 李潤雨
- 事務總長 : 姜容求
- 3. 26. • 三星航空 廣告料 貳百萬원 受領
- 6. 5. • 本會 會報(第10號) 2천부 發刊 配布
- 6. 19. • 5次年度 定期總會 開催

▣ 平生會費를 納付하고도 空士總同窓會報 第9號에 名單이 漏落된 同門은 白萬吉(1期), 韓光熙(9期), 高仁珪(9期), 李明煥(12期)이며 '98年 3月, 4月, 5月에 納付한 同門은 金聖光(7期), 李光學(11期), 安炳文(11期), 鄭判鍾(12期), 강희간(17期), 田永勳(18期), 김영철(19期)입니다.

▣ 徐鎮泰 將軍(空士 8期)은 空士校長을 歷任하고 中將으로 豫編한 후 英國 런던 킹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의 학위를 획득하고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月 26日附로 清州 西原大學의 總長에 就任하였다.

母軍·母校·短信

空軍參謀總長 離就任式 舉行

첨단전력이므로, 공군 전장병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과 현실을 직시하는 해안을 동시에 갖춰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공군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데 호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6일 오후 천용택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군 참모총장 및 군 고위장성과 역대 공군참모총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연병장에서 박춘택 대장이 25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하였다.

이날 행사를 빛내기 위해 공군의 주력기인 KF-16, F-4, F-5 편대의 공중분열이 펼쳐졌다.

천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 세계 각국은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면서도 국익보존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대남적화물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

이러 신임 박춘택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지도부는 최소한 인간적 존엄도 존재하지 않는 극한의 식량난에도 개혁과 개방을 도외시한 채 대남 무력화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팎으로 불안정성과 위기가 증폭되는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공군은 최고의 전비태세유지에 매진해 유사시에는 인격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21세기형 강한 공군건설」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천용택 국방부장관과 박춘택 신임총장(좌측), 이임하는 이광학 대장이 손을 맞잡고 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천용택 국방부장관 "일사불란한 지휘체제 유지" 박춘택 공군참모총장 "강한 공군건설에 최선의 노력"

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제를 유지, 완벽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국민의 믿음을 국민을 받는 군대로 국민의 국방시대를 열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광학 대장은 이 임 및 전역사를 통해 「공군력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면서 유사시에는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의 고귀한 피를 아낄 수 있는

空軍은 戰爭抑制戰力の 核心으로 國土防衛에만 專念할 것을 당부

大統領賞 李起商 少尉 受賞

總同窓會長賞 李淳雄 少尉 受賞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硯武臺에서 金大中 大統領 內外분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유엔군사령관, 3군 참모총장, 학부모,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空士 45期 卒業式과 任官式이 盛大히 舉行되었다.

이날 大統領은 訓示를 통해 強力한 安保態勢과 士氣 높은 強軍을 만들기 위해서는 軍은 政治的 中立을 철저히 지키고 軍人事의 公正性을 유지하며 平常時 徹底한 訓練으로 有事時에 對備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對北韓 3大 原則으로 어떠한 武力挑發도 容納치 않고 北韓의 흡수 統一을 배제하며 南北間의 和解와 交流協力을 擴

大해 나가고 地理學的 위치를 고려할 때 전쟁억제의 핵심전력 이자 현대전의 중심인 공군은 한 순간의 放心도 허용치 않고 철저한 훈련 속에서 국토방위에 만 전념하는 자랑스러운 공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졸업식에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家族과 함께 하는 계감장 수여와 在校生徒와 卒業生들간에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반지 증정식이 거행되었다. 在校後輩들은 星武臺를 떠나서 先輩들을 祝賀하고 卒業生들은 후배들에게 精銳 士官生徒로서 자부심을 갖고 미래 조국의 하늘을 책임질 멋진 후배가 될 것을 당부하는 흐뭇한 시간을 가졌다.



本會 發展을 위해 贊助金을 내주신 同門과 廣告에 協助하신 企業에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贊助金

- 李光學(11기) 200만원
- 成甫慶(5기) 100만원
- 李炳稷(5기) 100만원
- 李源碩(5기) 50만원
- 曠弼淳(5기) 100만원

廣告協助

- ① 三星航空 200만원
- ② 아시아나航空 200만원
- ③ GE·건설탄트 200만원
- ④ 大韓航空 150만원
- ⑤ 錦湖타이어 100만원
- ⑥ 대우중공업 100만원
- ⑦ LG精密 100만원
- ⑧ 한국하우본 100만원
- ⑨ 韓國航空振興協會 50만원



徐鎮泰(空上8期) · 前空上校長(豫中將) · 서원대학총장(政治學博士)

6.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군조직의 정치적 수락성(政治的受諾性)

한편 현역 4성장군 한 사람에게 용병권(用兵權 : 작전지휘/통제권)과 양병권(養兵權 : 교육/육용/진급/보급을 비롯한 인사권 및 예산기획/집행권을 포함)을 모두(全權) 허용하는 「통합군(육·해·공군을 모두 합쳐서 단일군으로 통합하는)안은 정치적 수락성 측면에서도 어렵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그 특성이 폭력적인 위협성을 내포하는 힘이므로 군 지휘관은 그의 기본임무인 유사시 국토방위와 국민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성숙한 정치체제에서는 제도적으로 적절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군 관리정책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대한민국 「군의 수뇌부 조직을 합동참모회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으로 정하고 이들을 수뇌부로 하는 군의 조직과 편성만을 입법 형성권에 맡겨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현행 3군 합동군 제도의 취지는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권력분립의 정신이 거대한 힘의 조직체인 군의 조직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國防政策의 透明성과 公正性(II)

는 헌법 학자들의 지적에 부합된다.1) 각 군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고도로 발달된 무기체계의 확보상의 고가성과 운영관리상의 섬세성 때문에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3군의 병렬체제가 가져올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의 효과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2)

보도된 「통합군」안은 통합군 총사령관(예 : 가칭 「국군총사령관」, 「국방참모총장」 또는 「국군참모총장」)에게 한국 공군과 해군의 장성 진급과 보급 등 인사권과 운영예산권을 포함, 일체의 군정권(軍政權)과 군사지휘감독의 군령권(軍令權)을 부여하게 되고, 따라서 실제로 문민 신분으로 직위가 부상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소지(素地)마저 생길 수 있다.3) 어떤 체제하에서이든 나라의 일은 정치적으로 처리된다. 민주주의는 법치(法治)라 하지만 무엇이 법이 되게 하는 것은 정치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어떤 기록권의 세력이 이익집단화하여 어떤 사안(事案)을 가지고 정치 「로비」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다른 정치가 쉽게 끌려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 체제이다. 특히 시행착오(施行錯誤)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정책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정치가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로비」진으로 삼는 것은 합법적인 형식절차만 갖출 뿐이고 사안의 본질적 오류(誤謬)를 덮어줄 열려가 있다. 필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이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7. 결 언

대한민국 전체의 거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國家大戰略 : National Grand Strategy)부터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국군 전체의 임무와 이를 실천하는 육·해·공 각 군의 역할과 기능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예 : 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4) 구체적으로 정의한 다음, 국방정책(군사력 규모와 구성 및 군 편제)과 군사전략(지·해·공 합동전략 및 한·미 연합전략)부터 범국가적(예 : 언론)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각 군별 전략의 균형적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토록 하여, 배타적 우위사상(排他的 優位思想)이나 아집(我執)의 입장을 버려야 할 것이다.5)

삼당헌 선별 기간과 반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국가의 방위전력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국방정책자문 위원회(National Defense Panel)와 유사한 사제의 유관 인사와 각 군 출신의 유경력 전문가 등 문민 신분의 각 계층별 전문가를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常設機構)로 운영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부합하는 군사력의 거시적 균형발전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탄실한 국방력을 물려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포클랜드」 전쟁 때, 3군 중 유일하게 영군 합정에 일격(一擊)을 가(加)한 Argentina 공군 조종사들이, 대함공격용(對艦攻擊用) AM.

39 Exocet 미사일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굴리며 아쉬워했던 일이 결코 타산지식일 수 없었다.6)

우리는 민주주의 주권국가(主權國家)로서, (1) 주권(특히, 領土保全 : territorial integrity)의 정당방위(Self-defense)와 외부 도발에 대한 최소 거부(denial) 능력; (2) 주권국가로서의 국익수호 능력; 그리고 (3) 머지않아 차지하게 될 개인소득 \$30,000 수준의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위선양을 위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균형잡힌 국방력과 국력투사(國力投射 : power projection) 능력을 배양하는데, 거시적 안목(국가 이익 전체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안목)에서, 대승적 문제 접근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은 국가 경제사정이 어렵고, 대북 경계를 강화할 때이기도, 오직 전비태세강화 훈련에 전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범국가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제경쟁체 제고 캠페인에 호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민생에 직접적인 단기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은 국방비(특히 운영비)의 절약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방부나 합참수준에서 국가경제위기 타개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다 생산적인 국방업무에 임(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권력의 집중을 급기시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통합군」에 대한 거센 자제를 전군의 화합(和合)과 단결(團結) 차원에서 더 이상 허용(許容)하지 말아야 하겠다.

註 :

- 1. 허영, 「군 구조 개선안의 문제점」, 동아일보(1990. 2. 26.), p.5.
2. Ibid.
3. 미국의 경우도 합참의장에게 군정권(특히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려고 조적계면을 고려한 적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유보되었다고 한다. 필자와의 인터뷰. Dr. David MacIsaac 및 Professor Lawrence E. Grinter. US Air War College,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1994. 12. 15.; 1995. 7. 19. 현재 각 군 총장에게 부여된 군정권 중 특히 장군의 진급심사 결정권과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의 획득(예 : 육공사업)/유지/관리 능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섬세성까지 고려하여야 함. 이렇듯 막중한 각 군의 군정권을 한 사람의 현역 군 지휘관에게 전권적(全權的)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과도한 권한/권력 집중의 결과를 낳게 될 개연성이 농후함.
4. 21세기형 군사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군처럼 「군사에 관한 모든 일」에서

- 과감한 「의식의 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부터 선행되어야 함. Blaker, Understanding :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p.9.
5. 조종현 해군소장(예), 「통일 한국의 해군력 구상」, 전략논총 제6집(1995. 12. 15.), p.179.
6. Argentina 공군은 Falklands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불과 다섯(5)대의 불란서 제 Super Etendard 제트 전투기와 다섯(5)기의 Exocet 대함공격미사일, 그리고 열(10)명의 Super Etendard 전투기 작전가능 조종사를 확보하고 있었음. 전쟁 중 5기의 미사일을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발사하여, 이중 두(2)말이 각각 한 발씩 명중하여 영국의 3,500톤급 구축함 Sheffield호와 15,000톤급 대형 수송선 Atlantic Conveyor호를 각각 격침했음. Super Etendard 전투기와 조종사는 모두 생존하였음. Rodney A. Burden, et al., Falklands : The Air War(London, UK : Arms and Armour Press, 1986.), pp.34~37. 일설에는 Argentina 공군이 전쟁 발발 전야에 총 여섯(6)기의 Exocet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모두 발사하여 Sheffield호에 한(1)말, Atlantic Conveyor호에 두(2)말을 각각 명중시켰다고도 주장함. 김홍래(金鴻來) 공군대장(예), 정보화 시대의 항공력(서울 : 나남출판, 1996.), p.150.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십계명

- ① 자녀를 소유물로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조물주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임을 알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물주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② 보상 심리에서 차원을 높이세요.
흔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못다 이룬 희망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자녀의 희망과 전혀 달라갈음을 일으킵니다.
③ 달란트를 인정하여 개발해 주십시오.

자녀의 숨은 달란트를 찾아 먼저 인정해 주며 그것이 5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자녀에게 알맞게 활용되도록 부모로서 적당한 관심과 개발을 하십시오.
④ 항상 희망을 주십시오.
자녀는 어리므로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여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코 실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 부권, 모권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며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 [심경이 말하기를]- 즉 권위와 질서를 말씀이 잡아줍니다.
⑥ 절대 비교하여 낙심케 마십시오.
이웃집 자녀와 친척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형과 아우를 비교하면 가정에서 마이니스가 되므로 개성을 믿으세요.
⑦ 현대적 안목으로 보십시오.
혹자는 부모의 학창시절을 회상하여 그 물에 맞추려 하여 현실을 무시함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현대 감각에 맞게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 합니다.
⑧ 효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버이날 꽃 한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에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출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 모두 출가 외인임을 알고 하늘에 소망을 품어 마음 편합니다.
⑨ 포근한 가정으로 자녀를 맞으세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가 없으면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족의 심리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로 자녀를 기다리십시오.
⑩ 하나뿐인 딸이고 매일 기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넓게 펴서 자녀를 전능자 조물주께 맡기고 쉼과 교육을 실천하십시오. (編輯室)

韓·美 安保 主要懸案

1.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 평화의 기본축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 아래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개의 코브라 헬기대대를 아파치 헬기대대로 교체하고 M109 A2, A3 자주포를 M109 A6 155M 자주포로 교체하는 등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방위체제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확고한 이행의 표시 수단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효과율을 높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체제 내에서 효과적인 진성수행에 의하여 위기고조시 전쟁억제를 위한 다양한 신속억제방안(FOD: Flexible Deterrent Options), 유사시 전투력증강(FE: Force Enhancement) 및 전시증원을 위한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FDL: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List) 등의 개념을 발전시켜 작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1997년 5월 19일 발표된 미국의 4년 주기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의 중간 검토결과에서 한반도 및 중동지역 등 2개 지역의 동시 전쟁발발에 대처한 다는 2개 주요전구전쟁(MTW) 전

략개념을 강조하고, 아·태지역에 10만여 명의 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 대한 참여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써, 한반도의 대북 억제태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지원

우리 정부는 미군 주둔이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하여 미군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는 물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의 감면 등 미군의 운영유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미 양국은 1974년부터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군원은 1977년 종결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는 미군이 전액 부담하던 한·미 공동 사용시설 운영유지 비용의 공동부담 문제가 대두되어, 자국군 사용분은 자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미 연합사 등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운영유지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한 비용분담 문제가 SCM에서 협의되기 시작하여 1989년에 우리 정부는 총 4,500만 달러를 부담하였다.

양국은 1990년에는 연합방위증강사업 등에 총 7,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에는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의 예외적인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미군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격적인 방위비분담이 시작되었다.

양국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의 방위비분담을 이행정의 마지막 연도인 1995년에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 Won-Based Costs)의 1/3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1년 1.5억 달러 부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1995년에는 현지발생비용 9억 달러의 1/3 수준인 3억 달러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현지발생비용 개념에 의한 방위비분담 방식은 현지발생비용에 대한 범위 설정 및 실사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매년 분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이견의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95년 11월 제27차 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양국은 기존의 현지발생비용 부담방식을 종결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분담금을 일정지표 증액방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연도별 분담금은 1995년도 분담액 3억 달러를 기준으로 전년도 분담금에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씩 증액하여 산정한다.

이 합의는 대북경수로 비용 등 총체적인 안보비용 증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써

부담 능력에 상응한 적정수준의 분담방안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미군주둔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분야에는 연합방위증강사업(CDIP)과 전쟁예비물자관리 및 장비정비를 포함하는 군수지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부분에서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의 일부 부담과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필요한 전투요원 파사, 소방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건설, 그리고 시설유지비 등을 위해 현금지원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우리의 방위비분담 노력은 SOFA에 따라 수반되는 간접 및 부동산 지원과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 인력지원은 물론 지역안정을 위한 대북 경수로 비용 부담 등 우리의 총체적인 안보비용을 망라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은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우리의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양국의 이익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星武台

IMF 時代를 맞은 우리는 온갖 시련을 예고하면서 살얼음판 같은 긴장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매일같이 수백개씩 도산하고 실업자는 하루 만명씩 늘어나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세금과 각종 교통비도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의 환파가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되고 기죽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뿔판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시련은 기회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간 우리는 철없이 너무 흥청대며 거들먹거렸다. 자만과 방탕의 생활의 결과임을 자인해야 한다. 1만불 소득에 2만불을 소비했으니 오늘 결과는 사필귀정이다.

새해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시련에 찬 한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

IMF 時代 對北 政策

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데다 남한마저 국제통화기금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은 남북 모두에게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만 몰두함으로써 관계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당장 남한의 새 정부는 대량실업에 따른 대북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남북지원 약화는 4자 회담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對美, 對日 접촉이 더욱 열기를 더해 갈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 서 美, 日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와 건전한 남북관

계를 해칠지도 모른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담, 군 공중보도를 통해 밝힌 대남 태도는 어두운 남북관계를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남조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콘크리트 잡채 계기,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안전기회부 해체 등 기존 대남화해전략을 다시 구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향후 4자 회담을 통해 시랑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담을 깨기 위한 새로운 장애물을 내세울 꾀를 예고하는 조짐이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장래를 예견하면서 '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와 협력 상호불가침과 군축에 이르는 모든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를 담고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새해를 동양의 원년으로 삼아 경제난 속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활짝 펼쳐 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4자회담을 성공시키는 비결이다.

우리의 문제는 당사자

인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강대국에 의존해 풀려고 하다가는 자칫 한반도에 대한 외세지배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경제난 속의 대북접근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민정부에서 수없이 바뀌어 온 대북정책의 혼선이 새 정부에 이어지면 곤란하다. 일단 정책 변화는 결국 북에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다. 남북 상호 신뢰야말로 남북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Global Leading Company



정밀 계측기 분야
정밀 계측기는 크고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야
LG정밀은 높은 통신용 계측기의 대중적 보급을 위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전자 계측기 사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세계 전자계측기 전문 메이커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방위산업 분야
LG정밀은 레이더기, 레이더, 통신전자장비, 지휘통제장비,
정보 전자산업 장비 및 항공전자장비 등 신산업 분야에
핵심기술의 이천을 확보하는 첨단무기분야에 국산화와
고도 정밀기술의 개발에 앞장서 있습니다.

전장품 분야
1994년 4월 차량탐색 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함으로써
LG정밀이 분야는 LG정밀의 차량 탐색 시스템 필수 부문
중요기술이 분야는 LG정밀 전문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선진 전장품 전문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LG정밀은 레이더, 유도무기, 통신전자, 정보전자, 지휘통제,
항공전자 등 첨단 방산장비와 초정밀 계측기기, 해양장비,
그리고 전장품 사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http://www.lgp.co.kr>

우리 경제는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계약이 지난 12월 3일 체결됨으로써 우리는 경제의 주권을 상실하고 국제통화기금의 식민지 역할을 하게 됐다. 매일같이 환율과 금리가 오르고 주가는 한없이 떨어져 국제적 신뢰도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

IMF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 세계은행 역할 ... 금융시장 위기 해결사 -

아 그간 피땀흘려 이룩한 경제를 희생시켜 제2의 도약,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너무나없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다. IMF는 지난 1944년 미국과 유

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회원국의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키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함께 설립된 세계은행(IBRD)과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금융질서를 떠받쳐 왔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IMF의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지난 '82년 중남미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위기 때 크게 강화됐고, 특히 지난 '95년 멕시코 폐쇄화위기 수습에 적극 개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

게 부각됐다. IMF는 대규모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 에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족한 외환을 공급해 주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도 한다. IMF는 한나라가 한표씩 갖는 유엔과는 달리 돈을 낸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에너지는 달리!!

에너지 절약을 위한 100가지 실천사항

가정일반

1. 실내에 온도계를 달고 수시로 온도를 확인하자.
2. 식사는 전자석이 함께 하여 취사용 연료를 절약하자.
3. 한 번 산 물건은 아껴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4. 재활용을 생활화하자.
5. 어린이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려주자.
6. 어린이에게 절약하는 습성을 갖도록 하자.
7. 목욕물을 아껴쓰자.
8. 수도물을 아껴쓰자.
9. 조리기의 불꽃은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자.
10. 열의 흡수가 잘되는 밀바닥이 넓은 조리기를 사용하자.
11. 냉력밥솥(냄비)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자.
12.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고 실내온도를 낮추자.

가전제품

13. 가전제품의 사용방법을 바로 알고 쓰자.
14. 쓰지 않는 가전기기는 플러그를 빼어 전력손실을 방지하자.
15. 출근할 시간을 알기 위하여 TV를 켜지 말자.
16. 미리 TV프로그램 안내를 보고 꼭 보아야 할 프로그램만 보자.
17. 냉장고는 가족수에 알맞은 용량을 구입하자.
18. 냉장고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사용하자.
19. 전력절감을 위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말자.
20.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지 말자.
21.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에는 반드시 식혀서 넣자.
22. 냉장고 구입시에는 반드시 전력소비 용량을 확인하자.
23. 전력소비량이 큰 구형냉장고는 교체하자.
24. 세탁기 1회 사용할 때 세탁시간(빨수시간 제외)은 10분 이내로 하자.
25. 세탁물은 모아서 세탁하자.
26.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온도를 26°C~28°C로 유지하자.
27. 선풍기는 가능하면 전력소비가 적은 미풍으로 사용하자.
28. 선풍기는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말자.
29. 선풍기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끄자.
30. 다림질은 한 번에 모아서 하자.
31.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을 피해서 다림질하자.

주택단열

32. 주택의 지붕, 천정, 벽을 단열하자.
33. 겨울철 실내온도는 18°C~20°C로 유지하자.
34. 창문은 이중창이나 복층유리로 하고, 틈새 바람을 막자.
35. 실내에는 자연조명을 적극 활용하자.
36. 겨울에는 채광, 여름에는 차광에 힘쓰자.
37. 백열등보다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자.
38. 실내를 밝은 색으로 꾸미자.
39. 조명은 실내 넓이에 알맞는 밝기로 하자.
40. 빈방 등 쓰지 않는 곳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소등을 확인하자.
41. 조명기기 및 반사판을 자주 닦자.
42. 복도, 현관 등에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하자.
43. 보일러는 자주 청소하여 열효율을 저하를 방지하자.
44. 보일러 구입시에는 꼭 난방 용량을 따져보자.
45.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자.
46. 노후 보일러는 교체하자.
47. 보조 난방기구를 설치할 때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치하자.

빌딩일반

48. 건물 내에 에너지절약 전담요원을 두자.
49. 건물의 컴퓨터 제어방식을 도입하자.
50. 각종 설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하자.
51.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 분석하자.
52. 중식시간 및 퇴근 1시간 전에 냉방기를 끄자.

설비

53. 저효율 설비를 과감히 절약형으로 교체하자.
54. 폐열회수를 강화하자.
55. 설비 및 배관을 보온하자.
56. 건물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자.
57. 밸브를 정확히 여닫자.
58. 태양열 이용설비를 설치하자.
59. 최대 전력 감시 제어 감치를 설치하자.
60.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부하측에 설치하자.
61. 냉동기는 가스흡수식이나 빙축열 이용기기를 설치하자.
62. 축열조를 이용하는 실외전력을 사용하자.
63. 냉각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자.
64. 냉각팬 회전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제어하자.
65. 에어컨의 필터, 냉각코일의 청소를 철저히 하자.
66. 차광(블라인드) 커튼을 설치하자.
67. 공조기 운전방식을 가변종량 방식으로 하자.
68. 공조기 필터를 철저히 청소하자.
69. 팬 코일의 개폐는 일괄제어방식으로 하자.
70. 공조기는 배기열 회수방식을 채택하자.
71. 4층 이하는 절어서 다니자.
72. 엘리베이터는 적층운행하고 닫힐 버튼을 누르지 말자.
73. 적정용량의 전동기와 고효율 전동기, 모터 절전감치를 설치하자.

조명

74. 효과가 적은 때에 광고용 조명을 소등하자.
75. 고효율 형광등 기구를 사용하자.
76. 참가속 조명은 개별스위치를 달거나 자동점멸 감치를 설치하자.
77. 외곽등은 고압나트륨등이나 메탈 할라이드등으로 교체하자.
78. 백열등은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자.
79.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에는 반드시 소등하자.

승용차

80. 출발 전에 핸선지를 미리 파악하자.
81. 난기운전(워밍업)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하자.
82.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말자.
83.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정차하자.
84. 경제적인 속도를 유지하자.
85. 불필요한 급제동 및 급가속을 피하자.
86. 기어 변속은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하자.
87. 에어컨에 의한 차내 온도는 적절하게 조절하자.
88. 엔진 공회전을 하지 말자.
89. 자동차는 항상 잘 정비하자.
90. 연료 사용량 주행거리(연비 km/ℓ)를 점검하자.
91. 레이디얼 타이어를 사용하자.
92.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여 운행하자.
93. 정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교환하자.
94. 오일 및 에어크리너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자.
95.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자.
96. 에너지 절약형 차를 선택하자.
97. 불필요한 운전을 삼가하자.
98. 경승용차를 타자.
99. 차계부를 쓰자.
100.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자.

건강 Health 심 장 병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술·담배엔 장사없다

- 50세 미만 심근경색 77%가 흡연자 -

담배 흡연은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균관 의대 이원로(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한마디로 흡연은 심장에 독」이라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 프래밍엄 지역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15년간 연구한 결과 하루 10개비씩 담배를 피울 때 남자는 18%, 여자는 31%씩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병원 박성욱(심장내과) 교수는 「흡연자가 관상동맥질환

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의 2배, 하루 한갑씩 피우는 사람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은 비흡연자의 3~5배」라고 말했다.

성균관 의대 박경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94년 10월부터 '97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50세 미만 심근경색 환자 59명을 조사했더니 이들 중 77.4%가 흡연자였다.」고 밝혔다.

흡연은 니코틴으로 관상동맥을 좁히고 심장근육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 그러면 니코틴 함량이 적

은 담배는 안전한다. 서울중앙병원 박승정(심장내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흡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임상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로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담배를 지금 끊으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심장 전문의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담배를 끊은지 두 시간 뒤면 혈관 속 니코틴이 없어지며 하루가 지나면 혈액내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체외로 배출되고 2개월이 지나면 사지로 전달되는 피 흐름이 좋아져 피곤함이 사라지고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박경의 교수는 「하루 담배 한갑씩 피우는 고혈압 환자가 담배를 끊으면 심혈관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35~40% 감소한다.」고 말했다.

술 적은 음주는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줄인다는게 정설이다. 그러나 이때 적은 음주라하면 위스키 두잔, 소주 석잔, 맥주 작은 것 한병을 말한다. 이 양을 넘기면 술은 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술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심장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확장성 심근증이 있다. 이는 알코올의 성분이 심장근육 세포에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술에는 과정에서 부정맥이 올 수 있다. 이를 미국에서는 휴일 심장증후군(Holiday Heart Syndrome)이라고 부른다. 주말 저녁 술을 마신 뒤 부정맥이 와 월요일 아침 음갈실로 달려온다 해서 부처진 이름이다.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이형 협심증은 80%가 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형 협심증은 술이 썰 때 쫓은 새벽녘 가슴 통증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찾아오는게 보통이라고 한다.

녹차 치매예방 큰 효과

- 주성분 카데킨, 발병원인물질 억제작용 -

일 동경대 신야 가스오 박사 논문 발표

“치매를 예방하려면 녹차를 마셔라”

녹차가 치매와 전자파 해독 등의 증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4회 국제 녹차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일본 도쿄대 분자세포생물학 연구소 신야 가스오 박사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카데킨의 효과”란 논문을 통해 학계에 정식보고 되었다.

녹차의 주성분인 카데킨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치매는 뇌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로 나누어지며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발병 과정을 관찰한 결과 치매에 앞서 베타 아밀로이드 펩

티드란 단백질 성분이 뇌에 축적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신야 박사의 연구팀은 미생물 대사산물과 생약 추출물 등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펩티드신경 독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활성물질을 발견했고 이 성분의 정체가 녹차의 주성분인 카데킨인 것임을 밝혀냈다.

신야 박사는 「카데킨이 알츠하이머가 치매에 유효한 치료약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녹차 소비량이 많은 지역에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카데킨의 치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 효성카톨릭대 이순재(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녹차의 전자파 방어효과」란 논문에서 녹차의 카데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이 전자파 영향으로 손상된 환산화계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고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간 조직의 손상을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 녹차가 당뇨병, 폐암, 피부노화, 대장암, 지방간 등을 억제·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중앙대 정종효 교수 주최, 태평양 주식회사 사장 서경배 후원으로 열리는 국제 녹차 심포지엄에서는 차꽃, 차잎, 차열매 등을 비롯해 희귀 다류와 세계 각국의 다기 차를 이용한 식품과 요리, 차의 선사유물 및 사진 등이 함께 전시됐다.

카데킨이란

콜레스테롤 등 성인병 암예방 탁월

카데킨이란 타니폴리페놀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차의 주성분.

일본 과학자 스기무리가 1927~'35년 차의 폴리페놀이 3종의 카데킨(BC, ECg, ECG)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혀냈다.

그 뒤 브래드필드란 학자가 또

다시 ECG를 분리해냈다.

카데킨은 광합성에 의해 형성되므로 일조량에 따라 함유량이 달라지며 콜레스테롤 등 성인병과 암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차의 약간 껍은 맛이 바로 카데킨 성분이다.





曁 正 基(空士 7期)

釜山女子大學校 教授

'인생은 나그네 길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느냐'하는 노래가 있다.

그러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가 아니다. 올 때는 그냥 왔지만 '왔다가 그냥 갑니다.'는 비극적인 삶이다. 뭔가 보여주고 남겨 놓아야 한다.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문화 유산을 남겼고, 예술가들은 작품을 남겼으며, 철학가는 철학을 남겼고, 경영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남겼다.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보라.

1. 마음에 뿌린 씨앗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은 '환경의 도전'과 '인간의 도전'에 의하여 창조된다고 말했다.

"맥클렌란드"는 성취 동기의 원리로 문명을 설명했다. 성취 동기란 뭔가 이루어 보려는 욕망이며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려는 의지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업을 이루게 된다. "맥클렌란드"가 세계 40개국의 교과서를 분석 검토한 결과 성취 동기가 높은 내용의 나라는 훌륭한 업적을 쌓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별볼일 없었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성격 형성기인 어린 시절, 위인전이나 동화·발명·발견

自己開發과 生活設計

이야기, 성공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잘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에 뿌린 씨앗은 그가 자라남과 함께 싹이 돌아나고 커서 열매를 맺는다.

2. 기업가는 개척자다

영어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 이는 기업과 모험심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란 모험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개척자 정신이 뚜렷해야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신념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며 용기와 인내를 함께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게 기업가이다.

기업이란 돈을 위해 밥을 불리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고 밀고 나아가며 남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 창조적 정신의 소유자가 기업가이며 이런 요소가 기업가를 만든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말듯이, 정체된 기업은 썩게 마련이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주인공답게 행동하는게 필요하다. 주인공은 스타이며 스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무대를 창조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쳐야 한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할 때 다른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그것 뿐, 잡념도 공상도 있을 수 없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마련이다. 성취해 나가는 데 대한 보람과 기쁨만이 나를 감싸주며,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며 자신을 갖는 것이다. 자신있는 행동은 자신있는 결과를 만들며 자신없는 행동은 자신없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사람에 들두하듯, 일을 할 때 일에 들두

하는 자세가 나를 성공인의 명단에 올려놓는다.

성취해 나가는 데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사전에는 오직 현실과 미래만이 존재하며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3. 성취인의 다섯가지 특징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며 움직인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바로 삶의 증거이다. 때문에 일터는 삶의 수련장이자 결코 인생의 놀이터가 아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어떤 삶을 만드느냐를 말해 준다.

인간의 가치는 창조에 의해서 측정된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창조했는가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신장이나 체중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삶의 수단이기보다는 바로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벼룩공이 자기가 살 집이 아닌 데도 벼룩 한참한잠을 정성껏 쌓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창조이다.

어떤 학자는 성취인의 특성을 다섯가지로 나누었다.

① 높은 목표의식이다.

목표를 세우고 창조해 나가는 자세가 성취를 만들어 준다.

② 강한 집념이다.

렌즈로 빛을 모으듯이 일구워 심고 일만을 생각해 보라. 자연서도 그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쉬면서도 그 생각을 해 보라. 기적이 나타난다.

③ 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의무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얼마나 일에 애정을 쏟았느냐는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④ 일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일이다.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추구하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다. 잘 모르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할 수도 있다. 좋은 결과란 좋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나쁜 결과란 나쁜 만한 이유가 어딘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⑤ 끊임없는 노력이다.

10,000원에서 1원이 모자라도 그것은 만원이 될 수 없다. 한 자루의 촛불은 밤 하나를 밝힐 뿐이지만 태양은 온 누리를 밝게 한다. 자신의 성취 의욕의 승압 공사가 필요하다.

1.2볼트에서 12볼트로, 120볼트에서 220볼트.....

이렇게 의욕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키우고 또 키우면 당신은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은 모두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고 자신을 승압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게을리해서 성공의 티켓을 따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날그날, 보람있는 창조적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었을 때 자신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행복도 축복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1998年度 定期總會 召集 公告

本會 會則 第13條에 의거 1998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자 하오니 空士 同門들께서는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參席하시어 本會 發展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1. 日 時 : 1998年 6月 19日(金) 18:00

2. 場 所 : 空軍會館

3. 主要議題

- ① 6次年度 會長 選出
- ② 5次年度 會務報告
- ③ 空士開校 50周年行事計劃說明會

4. 其他事項

- ① 參席한 同門들 간의 親交를 위한 간소한 자리 마련
 - ② 참석할 수 없는 任員과 期生會長은 必히 通報하여 주시기 바람.
- 불참시는 모든 것을 委任한 것으로 간주(02-845-1090)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長

